

# 이중 중요성 평가

포스코홀딩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ESG 경영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2022년부터 이중 중요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를 도입하여 3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포스코홀딩스 차원의 핵심 ESG 이슈에 더해 철강, 이차전지, 인 프라, 에너지, 무역 등 5개 사업부문별 핵심 ESG 이슈까지 함께 선정할 수 있도록 이중 중요성 평가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코그룹이 당면한 핵심 ESG 이슈를 올바르게 선정하여, 효과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둘러싼 ESG 이슈풀(Pool)은 CEO 주재 그룹ESG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과 ESG NDR/컨퍼런스콜/이메일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파악된 이슈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투자자, 학계, 정부, 고객사, 공급사 및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제3회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포스코홀딩스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ESG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 및 이중 중요성 평가 등을 통해 도출된 상위 이슈는 포스코홀딩스의 '10대 핵심 ESG 이슈'로 선정하여, 중장기 KPI와 연계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핵심 ESG 이슈별 관리 현황 등 상세 내용은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프로세스	목적	주요 검토 사항
<b>1 이해 및 선별</b>	포스코홀딩스의 사업모델과 밸류체인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유의미한 잠재적 영향을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회사/밸류체인별 SASB 산업 지표</li> <li>· 글로벌 4대 평가기관 ESG 평가항목(MSCI, Sustainalytics, ISS ESG, KCGS)</li> <li>· 투자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 문의 사항</li> <li>· 사업회사별 중요성 평가 결과 및 동종업계 중요 ESG 이슈 보고서 분석 등</li> </ul>
<b>2 이슈 식별</b>	식별된 ESG 이슈의 사회·환경적 영향(Impact)과 재무적 영향(Risk & Opportunity)을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환경적 영향] 5개 사업모델 및 가치사슬에서 식별된 ESG 이슈의 사회·환경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스코홀딩스의 경영활동이 외부에 미치는 긍정/부정, 실재/잠재 영향 등</li> </ul> </li> <li>· [재무적 영향] 식별된 이슈와 관련된 ESG 규제/법률/정책 등의 재무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환경이 포스코홀딩스의 재무적 가치에 미치는 기회/위험 등</li> </ul> </li> </ul>
<b>3 이중 중요성 평가</b>	그룹ESG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EO 주재 그룹ESG협의회에서 논의한 아젠다에 대한 분석(2023년 29개)</li> </ul>
	이해관계자 직접 소통(ESG NDR, 컨퍼런스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온·오프라인 요청 및 대응 현황 분석(2023년 156건)</li> </ul>
	내·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스코홀딩스의 사업 및 ESG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내·외부 전문가 36명 설문 진행</li> </ul>
	주요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회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을 통한 투자자, 정부, 고객/공급사 의견 청취</li> </ul>
<b>4 중요 이슈 선정</b>	핵심 ESG 이슈의 우선순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량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핵심 ESG 이슈의 우선순위 선정, 이사회 보고 및 최종 확정</li> </ul>

# 이중 중요성 평가

## 포스코홀딩스 핵심 ESG 이슈 선정 결과



상위 ESG 이슈	사회/환경적 영향	재무적 영향
1 기후변화	94	87
2 이사회 독립성/투명성	91	76
3 안전 및 보건	91	73
4 에너지	84	70
5 친환경 기술 및 제품	59	63
6 근로 환경	62	54
7 사업장 환경 관리	48	55
8 생물다양성	50	47
9 컴플라이언스	45	52
10 다양성 및 포용성	48	41

ESG	세부 이슈	GRI	SASB	TCFD	SDGs
E	1 기후변화	GRI 305	EM-IS-110a.1, EM-IS-110a.2	●	SDGs 11, 13
	4 에너지	GRI 302	EM-IS-130a.1, EM-IS-130a.2	●	SDGs 7, 11
	5 친환경 기술 및 제품	GRI 302		●	SDGs 9, 12
	7 사업장 환경 관리	GRI 303, 306	EM-IS-120a.1, EM-IS-140a.1, EM-IS-150a.1		SDGs 6
	8 생물다양성	GRI 304			SDGs 14, 15
S	3 안전 및 보건	GRI 403	EM-IS-320a.1		SDGs 3
	6 근로 환경	GRI 401, 402, 407, 408, 409			SDGs 3, 8
	10 다양성 및 포용성	GRI 404, 405, 406			SDGs 4, 5, 10
G	2 이사회 독립성/투명성	GRI 405			
	9 컴플라이언스	GRI 205, 206			SDGs 16

# 이중 중요성 평가

## 사업부문별 핵심 ESG 이슈 선정 결과

포스코홀딩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중 중요성 평가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철강, 이차전지소재, 인프라, 에너지, 무역 등 5개 사업부문별 핵심 ESG 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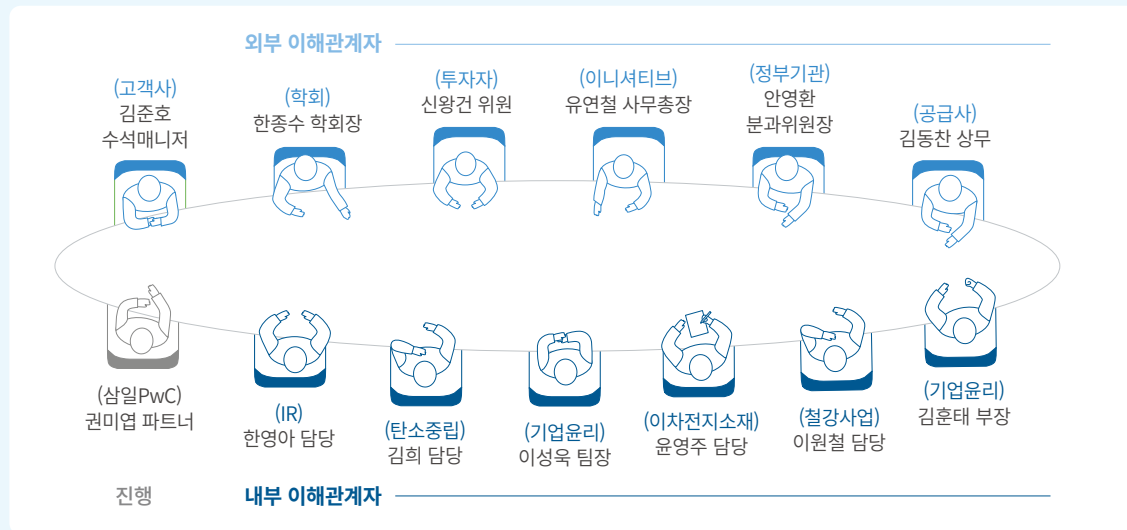
철강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인프라 부문 (건설, IT & 엔지니어링)		에너지 부문		무역 부문	
Top 5 이슈		Top 5 이슈		Top 5 이슈		Top 5 이슈		Top 5 이슈	
1	기후변화	1	기후변화	1	컴플라이언스	1	컴플라이언스	1	컴플라이언스
2	에너지	2	에너지	2	다양성 및 포용성	2	기후변화	2	기후변화
3	컴플라이언스	3	컴플라이언스	3	안전 및 보건	3	안전 및 보건	3	친환경 기술 및 제품
4	친환경 기술 및 제품	4	안전 및 보건	4	친환경 기술 및 제품	4	에너지	4	에너지
5	근로 환경	5	공급망 관리	5	기후변화	5	친환경 기술 및 제품	5	근로 환경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포스코홀딩스는 2024년 4월 29일 ESG 관련 이해관계자를 포스코센터에 초청해 제3회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라운드테이블은 포스코홀딩스가 그룹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주요 ESG 이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표해 신왕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안영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분과위원장, 한중수 한국회계학회 회장, 김준호 HD한국조선해양 ESG 부사장, 김동찬 조선내화 상무가 참여했고, 포스코홀딩스에서는 이성욱 기업윤리팀장(부사장), 윤영주 이차전지소재 사업관리담당(전무), 김희 탄소중립전략담당(전무), 이원철 철강사업관리담당(상무), 한영아 IR담당(상무), 김훈태 기업윤리팀 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포스코홀딩스의 2023년 ESG 경영 성과를 듣고, 2024년 기대사항을 제안하며 균형 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포스코그룹의 ESG 정책 및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참석자 현황



## 2023년 활동 리뷰

**Q. 포스코홀딩스의 2023년 주요 ESG 성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포스코홀딩스) 김훈태 부장** 포스코홀딩스의 2023년 주요 ESG 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이슈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중간 목표를 새롭게 설정한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목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0% 줄이고, 2040년에는 50%,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하는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035년 30% 감축이라는 더욱 강화된 중간 목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 약 6,0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250만 톤 규모의 대형 전기로 설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로는 2025년 말에 완공되어 2026년부터 저탄소 강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국의 플랜트 건설사인 프라이메탈스와 수소환원제철(HyREX) 데모 플랜트 설계에 착수하여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는 포항제철소에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개소하는 등 2023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탈탄소화를 행동으로 보여준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의 인권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에 '그룹인간존중협의체'를 신설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포스코를 포함한 20개의 사업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 경쟁력의 토대인 설비 강건화를 위해 포항과 광양에 신설한 각 3개의 정비 자회사에 대해서는 인간존중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정도경영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했습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포스코그룹의 10개 회사가 모두 우수등급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CP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 기업 집단에서 최대 기록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룹 차원의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실천 의지와 노력이 대내외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망 관리' 이슈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에서 공급망 ESG 이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룹공급망관리협의체'를 신설하여 반기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연간 5억 원 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공급사 중 96% 이상의 회사에 대해 서면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열위 공급사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통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31개사에 대해 서면 진단을 완료했으며, 2028년까지 모든 공급사를 대상으로 실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이슈입니다. 포스코그룹은 임직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근로손실재해율(LTIFR) 지표에 더해 총기록사고율(TRIFR) 지표를 그룹 차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은 사고도 기록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예방적 관점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로 사업회사 C-Level 경영진이 참여하는 '그룹안전협의체'를 운영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스마트 통합안전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영상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CCTV를 통해 현장의 위험작업, 위험지역 및 설비의 이상

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포스코DX에서 자체 개발하였으며, 제조, 건설, 발전소 등 130여 개 현장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2023년에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등 그룹사의 현장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AI 로봇 솔루션을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포스코홀딩스가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앞으로도 그룹 차원의 ESG 경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환경 분야의 핵심 ESG 이슈와 대응 방안에 대해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A (환경 분야 전문가) 안영환 위원장** 철강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산업이자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16.7%를 차지하는 탄소 다배출 업종입니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철강산업에서의 탄소 배출량 감축이 필수적입니다. 포스코가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중간 목표를 추가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수립하는 것’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포스코는 향후 탄소감축을 위한 계획과 실적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히 보여주기를 제언드립니다.

**A (포스코홀딩스) 김희 탄소중립전략담당** 안영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이 로드맵은 원료-투자-에너지-기술개발 등 중장기 목표와 종합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과 협업하며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단기적으로는 기존 설비 효율 향상과 저탄소 연·원료 사용, 저HMR(Hot Metal Ratio) 조업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전기로 도입 및 CCUS(탄소 포집, 활용, 저장) 등 실현 가능성이 큰 브릿지 기술을 도입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HyREX를 개발하여 철강 공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기로 투자, HyREX 데모 플랜트 설계 착수 및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 개소는 포스코의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A (HD한국조선해양) 김준호 ESG 부서장** 조선업은 전체 탄소 배출량의 90% 이상이 선박 운항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조선업계는 암모니아 추진선 및 그린메탄올 선박 등의 도입을 통한 연료 전환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연료 전환이 완료된 후에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Scope 3 배출량 감축이 다음 과제가 됩니다. 특히 선박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부품 중 철강재가 40%를 차지하므로, 가까운 미래에는 저탄소 강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포스코는 저탄소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A (포스코홀딩스) 김희 탄소중립전략담당** 김준호 부서장님 말씀처럼 포스코는 주요 고객사인 자동차사와 조선업계의 저탄소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Scope 1,2 측면의 탄소를 줄인 저탄소 강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전기로를 활용한 고급강 생산기술도 연구하여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A (포스코홀딩스) 이원철 철강사업관리담당** 철강은 자동차, 가전, 조선, 건설, 기계 등 다양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탄소를 줄인 저탄소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소환원제철을 통해 탄소 배출이 없는 철강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상용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수 년간 현재의 고로 생산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고로 설비에서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는 브릿지 기술 개발이 중요합니다. 포스코는 ‘수소가 포함된 가스를 고로에 직접 주입’하거나, ‘고로에 CCUS를 연계’하는 등의 새로운 조업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철강 제품의 공급 물량이 부족해지거나, 고객사에 과도한 비용을 전가시키지 않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저탄소 철강 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사회 분야의 핵심 ESG 이슈와 대응 방안에 대해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A (사회 분야 전문가) 유연철 사무총장** 작년 포스코홀딩스 및 산하 주요 사업회사의 성과를 살펴보면, ESG 체계가 견고하게 구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그룹의 10개 사업회사가 CP 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철강 사업회사인 포스코가 중대재해 0건을 달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포스코그룹만의 독창적인 문화인 무재해 포상제도처럼, 부정적 결과에 대한 페널티보다는 긍정적 성과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추가로, 포스코그룹의 주요 ESG 성과를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맞춰 대내외에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 (포스코홀딩스) 이성욱 기업윤리팀장** 유연철 총장님 말씀대로 올해 발간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포스코그룹의 주요 ESG 성과를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맞춰 정리하겠습니다. 사회 분야에서 포스코그룹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ESG 이슈는 ‘안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많은 기업이 안전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포스코는 ‘건강권’의 관점에서도 작업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보건 문제를 추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21년부터 근로자 대표, 임원, 사외 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건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작업 환경의 위해성을 측정하고 생애주기별로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A (투자자) 신왕건 위원** 올해부터 국민연금은 중점 관리 사안에 기후변화와 산업안전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이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확인을 했지만,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포스코그룹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앞으로 국민연금과의 대화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포스코홀딩스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타사 대비 모범적인 활동을 인정받고 있어 국민연금과의 우호적인 대화의 파트너입니다. 기후변화 분야에 있어서도 국민연금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주요 성과를 투명하게 공시하면 다시 한번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지배구조 분야의 핵심 ESG 이슈와 대응 방안에 대해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기업들은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할 때 주주와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독립성과 전문성을 검증합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A (포스코홀딩스) 김훈태 부장** 사외이사 후보 선정에 대한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사외이사가 자신의 후임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2004년부터 전원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임 예정 이사의 5배수를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며,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후보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사외이사로 선임됩니다.

**A (지배구조 분야 전문가) 한중수 교수**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정도경영이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포스코그룹은 국내 기업 중 정도경영의 대표주자이지만, 이사회 운영 측면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룹의 정도경영 방침이 이사회에서도 철저히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는 이사회 운영 및 선임 과정에서 과거 관행을 따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 위험 관리 및 기회 창출을 위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같은입니다.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철강 외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기회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A (투자자) 신앙건 위원** 포스코홀딩스의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현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자격심사와 후보 추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사외이사가 자신의 후임을 정하는 방식은 주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선진 기업들은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할 때 주주와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독립성과 전문성을 검증합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A (지배구조 전문가) 한중수 교수** 이중 중요성 평가를 통해 도출한 ESG 이슈를 보면, 주로 위기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이 철강을 넘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전환한 점을 고려할 때, 많은 ESG 이슈들이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충분히 강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철강 외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기회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A (포스코홀딩스) 운영주 이차전지소재 사업관리담당** 포스코그룹은 철강 사업을 시작으로 최근 친환경 미래사회 구현에 중요한 이차전지소재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차전지소재 분야에서 원료부터 최종 소재까지 모두 공급할 수 있는 풀(Full) 밸류 체인을 완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 효율성을 높이고 원료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사이클링 사업을 통해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면 원료 수급 안정성과 폐기물 비용 절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 절약과 환경 오염 최소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차전지 시장이 현재 일시적인 정체를 겪고 있지만, 포스코그룹은 지속적인 투자로 우량 자원을 확보하고 미래 혁신기술을 빠르게 도입해 시장이 회복될 때 성과를 극대화할 준비를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A (조선내화) 김동찬 상무** 저희 회사는 포스코의 고로, 전로 등 고온에서도 견디는 내화물을 제조하여, 포스코 현장에서 해체 및 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 환경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이 큼니다. 안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 시설 등의 측면에서 포스코와 적극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A (HD한국조선해양) 김준호 ESG 부서장** 공급망 측면에서도 위험 관리는 중요합니다. 포스코는 HD한국조선해양의 주요 공급업체 중 하나로, 포스코의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운송업체 파업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가 내부적으로 철강재에 대한 탄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당사의 Scope 3 탄소 배출량이 정확히 측정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 (포스코홀딩스) 김희 탄소중립전략담당** 최근 탄소배출량 정보를 요구하는 이해관계자가 많아졌고,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 및 제품 단위별로 탄소 배출량과 원단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A (포스코홀딩스) 한영아 IR담당** 투자자 관점에서의 위험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가 물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당시 수립했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포스코홀딩스는 높은 ROI와 성장성이 있는 분야에 수익을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이차전지입니다. 둘째,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최저 배당금 10,000원을 실현했고, 앞으로도 2023년에 수립한 배당정책을 계속 적용할 예정입니다. 셋째, 건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최고경영진의 교체와 이사회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중에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공개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주회사로서 포스코그룹이 대내외 ESG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ESG 리스크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되는 그룹의 ESG 이슈를 포스코홀딩스 기업윤리팀(ESG)에서 종합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그룹ESG협의회 등 C-레벨 경영회의체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체계입니다.

2023년에는 ESG NDR, 투자자 컨퍼런스콜 및 이메일 등 ESG 리스크 대응체계를 통해 그룹 차원에서 총 156건의 ESG 이슈를 접수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영역별로는 환경 69건, 사회 59건, 거버넌스 20건, 공통 8건이 접수되었으며, 아젠다별로는 온실가스 50건, 인권 37건 순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해관계자별로는 투자자/보험사의 문의가 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객/공급사 및 ESG 평가기관의 문의가 각각 30건, 2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해관계자 소통 내용 중 주요한 문의 내역과 개선 현황 등은 본 보고서에 충실히 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영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국문과 동시에 발간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함에 따라 올해부터 국/영문 보고서를 동시에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홀딩스는 이해관계자와의 열린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이해관계자 직접 소통 이슈(156건)

영역별	건수	비율
환경	69	44%
사회	59	38%
거버넌스	20	13%
공통	8	5%
아젠다별	건수	비율
온실가스	50	32%
인권	37	24%
거버넌스	14	9%
공급망	10	6%
생물다양성	9	6%
윤리/컴플라이언스	9	6%
안전/보건	5	3%
기타	22	14%
이해관계자별	건수	비율
투자자/보험사	81	52%
고객/공급사	30	19%
ESG 평가기관	27	17%
정부/지자체	3	2%
지역사회	2	1%
기타	13	8%

구분	아젠다	이해관계자 주요 문의 사항	보고서 페이지
환경	온실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환 리스크 검토를 통한 탄소중립 로드맵 시나리오 분석 강화</li> <li>Scope 3 측정 강화 및 외부 인증 요구</li> <li>브릿지 기술에 대한 추가 설명, HyREX 기술 개발 등 저탄소 투자/기술 개발 현황 업데이트</li> </ul>	50 160 38~42
	생물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네시아 팜농장 NDPE 이행 내역</li> <li>아르헨티나 공장 건립에 따른 조사 경과 업데이트</li> </ul>	151~155 71~72
사회	지역사회/원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네시아 팜농장 원주민 Grievance System 개선</li> </ul>	152
	공급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공급망 실사 계획 수립 및 실사 결과 공개</li> </ul>	95~96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튀르키예 POSCO ASSAN TST 노조 이슈 관련 진행 경과 업데이트</li> <li>본사 차원의 해외사업장 노사 이슈 재발 방지 대책 마련</li> <li>해외법인 인권실사 결과 및 개선 방안 공개</li> <li>미얀마 MPCC 인권실사 추진 및 관련 내용 공개</li> </ul>	144~146 147~148 149 102
거버넌스	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EO 선임, 이사 선임 프로세스 설명</li> </ul>	128~129
기타	ESG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용 언어에 따라 중요 정보를 공개받는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국문과 영문 보고서의 동시 발간 제안</li> <li>ESRS, ISSB 등 ESG 공시 기준에 대한 준비 및 신규 글로벌 공시 지표에 대한 추가 공시</li> </ul>	6.28(금) 국영문 동시 발간  ISSB 4대 필러 ESG성과 반영 공시, ESRS 기준 반영 ESG Factbook 업데이트